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0년도 표어 ◎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 (딤후1:1)

◎ 행동지침 ◎

- 1. 하나님의 전(殿)을 짓는 해가 되도록 한다.
- 2.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 세기가 되도록 한다.
- 3.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새 천년이 되도록 한다.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http://seoulchurch.or.kr

## ‘예수의 군사’ 기도 후원자 찾습니다

### 오늘 예배 후 진중세례자·군선교사 결연 서명

비전 2020 운동본부(본부장 이병생 장로)는 군 장병들과 결연, 이들을 위해 기도로 지원하는 사랑의 기도 후원자를 찾고 있다. 이를 위해 운동본부에서는 오늘 I, II, III부 예배 후 교회 앞에서 중보 기도 사역자로서 등록 서명을 받는다.

이번 기도 후원 대상자들은 전후방 각급 부대에서 진중 세례를 받고 우리 교회가 지원하기로 된 26명의 장병과 우리 교회 성도로 군에 입대하여 군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22명 등 모두 48명이다.

진중 세례를 받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로 후원할 25명의 장병은 특히 우리 교회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가족의 일원이다. 이들은 전역 후 우리 교회에 출석할 수 있는 미래 교인으로서의 의미도 있어 이들을 위한 기도의 후원이 특히 요청되고 있다. 운동본부에서는 이들 미래 교인 가족에 대한 전도 심방 활동도 현재 전개하고 있다.

한편 군선교사로 파송된 22명의 장병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로 현재 군부대에서 근무하

며 군 복음화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이들로 인해 우리 군의 신앙 전력화가 이룩되고 보다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뜨거운 기도의 후원이 기대되고 있다.

기도 후원자는 진중 세례 장병들과 교회에서 파송된 군 선교사들이 군에서 믿음의 용사로 보다 큰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로 후원하고 대상자 가족을 번도하고 심방하는 등 지원 활동을 펴게 된다.

운동본부 관계자들은 “이번 기도 후원은 군에서 세례를 받은 장병이 군복무 기간 중 신앙 생활에서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고 군 생활

에서는 모범적이며 칭찬받을 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많은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에 결연하는 기도 후원 대상자들은 다음과 같다.

▶미래 교인= 조성현 김성철 조윤환 김도훈 이홍식 노승언 이태운 소중연 김용한 이상백 김의창 박상현 유영현 정현석 박상현 박준서 박병수 임원빈 김형철 조수범 음호영 서병문 최상운 유형민 이용욱

▶군파송선교사= 김두현 김음호 김현준 오순배 안용주 천정윤 채수길 유동훈 김병철 오명걸 손동혁 맹한철 노용완 오유록 임창현 이재철 김상호 박준희 서준우 박성우 황유식 소원섭

## 오늘 전교인 탈북난민 서명 운동

우리 교회는 탈북 동포 난민 지위 인정을 위한 전교인 서명 운동을 오늘 전개한다.

탈북난민보호UN청원운동본부에서 16일을 한국 교회 서명의 날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탈북 동포를 위한 서명 운동을 전개함에 따라 우리 교회도 오늘 서명운동을 펴게 된 것이다.

1천만 명 서명 달성을 목표로 하는 운동본

부는 6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서명 특별기간으로 정한 바 있으며 현재 서명자 수는 지난 6월 7일 7백만 명을 넘어선데 이어 최근까지 8백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현재 북한을 탈출해 중국 등 제 3국에서 떠도는 탈북 동포들의 수는 약 10만~3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름도 나이드도 알려져 있지 않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 길이 없으며 청년인지 노인인지도 분간할 수 없다. 그런 것이야 아무려면 어때랴. 그저 마게도나 사람으로 족하다. 그의 뜻은 결코 자기 자랑이나 선전에 있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호소는 처절했다. 마치 독사의 입으로 빨려 들어가는 개구리의 비명파도 같은 것이었다. 부자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벼슬이 하고 싶어서도 아니었다. 향락이 그리워서도 아니었다. 캄캄한 땅에 빛을 달라는 몸부림이었으며 메마른 사막에 하늘샘으로부터 수문을 열어 달리는 아우성이었다. 마귀의 손아귀에서 한 시 바빠 해방을 시켜 달라는 신음이었다.

이 시대에도 마게도나 사람의 피눈물나는

절규가 있다. 이국 땅에서 짐승처럼 쫓겨다니는 10만 여 탈북 동포들의 호소가 그것이다. 그 이름은 끝내 감추어진 마게도나 사람이다.



## 마게도나사람

(사도행전 16장 9절)

이종윤(목사, 탈북난민UN청원 추진위원장)

페드로 사도를 끌어 들인 고벨로처럼 선지자 엘리사를 끌어 들인 수넴 여인처럼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있는 마게도나 사람을 기억하자.

그들이 지금은 천대받고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그들은 복의 기관으로 우리에게 주신 커다란 상급이었음을 고백할 날이 있을 것이다. 마게도나 사람의 울부짖음이 있었기에 바울

이 복음을 들고 그곳에 가게 되었고 그 결과 유럽의 기독교 문화가 시작되게 한 놀라운 공적을 세우게 된 것이다. 그들을 외면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음, 사랑과 화평을 날라다 줄 전령사들이기 때문이다.

나라와 교회 안에도 마게도나 사람이 있다. 이들로 인해 가정에는 경건을, 교회에는 화평을, 사회에는 신의를 불러들이게 되고 그

리고 이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끌어 들이는 마게도나 사람이 있어야 세상이 바로 된다. 오늘도 조국을 떠나 타향에서 정처없이 헤매는 탈북동포를 향해 값싼 동정심만 갖지 말고 그들을 존귀히 여기고 그들의 부름에 감사한 마음으로 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한다.

이사야 강해

왕의 기도 응답

이사야 37장 1-7절

히스기야 왕은 랍사게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욕한 말을 신하로부터 전해 듣고는 자기 옷을 찢으며 굵은 베 옷을 입고 기도하기 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왕궁 말은 자 엘리아김과 서기관 셉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회개하는 표시로 굵은 베 옷을 입었습니다. 왕은 그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어 영적 지도를 받도록 하고 나라를 위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4절).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승리를 예언합니다(3절). 하나님께서 랍사게에게 보냈던 히스기야 왕의 사신을 살려서 돌려보내심은 그들의 입을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의 메시지를 듣도록 하고 한때 애굽을 의지했던 잘못을 회개케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날이 환난과 책벌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랍사게의 비신앙적인 말로 인해 히스기야 왕은 그 날을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로 선포하여 백성들의 회개를 재촉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죽게 되어 스스로 해결할 힘이 없었습니다(3절). 이런 위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1.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다

히스기야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랍사게는 유대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라"고 여러 차례 충고했습니다(사 36:7,15-20). 그러나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더욱 가까이 갔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이사야에게 남은 자, 즉 택한 백성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은 위기를 당했을 때 이와 같이 기도의 무기를 적절하게 사용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첫 번째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두 번째 관심은 백성의 안전이었습니다(4절). 왕은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스스로 기도하면서 또한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신앙과 겸손의 자세입니다.

2.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 선지자를 찾았다

세상에서 힘 있는 자, 지혜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들에

게 조언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약 5:16).

그런데 무엇보다 최고의 조언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 겸손히 자기의 신하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이의 조언을 요청하

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면서 그의 사신들을 하나님의 종 이사야에게 보내어 그들이 당한 일을 상세히 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말씀을 기다리고 또 그에게 남은 자, 곧 택한 백성을 위한 기도까지 부탁을 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첫 번째 오는 시험은 두려움입니다. 공포심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복잡하게 만듭니다. 염려와 걱정은 영혼을 쪼먹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두려워 말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는 하나님께 의논하는 길 외에는 피난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 계시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 옷을 입고 여호와와 전으로 갔고 왕궁 말은 자 엘리아김과 서기관 셉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 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그가 그의 상전 앗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뉘대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준윤 목사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보고한 내용은 유다가 극난에 처했다는 것, 여호와와 하나님이 앗수르 사람 랍사게에게 훼방을 당하셨다는 것, 그리고 택한 백성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이같이 자세히 보고한 것은 그가 영적 충고를 해주기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적인 말씀은 세상사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조언을 할 수 없다고 해도 기도로 도울 수 있습니다.

3. 왕은 하나님의 계시로 위로받았다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갔을 때 예언자는 왕이 바랐던 하나님의 위로를 이미 받고 있었습니다(6절).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안심을 주면서 동시에 소망을 주었습니다(7절).

의 말씀을 받은 왕은 평안과 안정을 얻었습니다. 사실 랍사게의 능욕은 히스기야에게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적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징벌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을 앗수르 왕에게 둔다고 하신 것(7절)은 앗수르 군대를 겨와 같이 가볍게 보이고 바람으로 겨를 날리듯이 쉽게 유다에게서 추방하겠다는 뜻입니다.

고국으로 물러간 앗수르의 산헤립은 느느웨에 거주하던 자기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그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당으로 도망했습니다(사 37:38).

원수 산헤립이 처치됨으로 히스기야 왕은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능력을 믿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기도뿐 아니라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함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일의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종에게 기도를 요청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선교회 · 여전도회 임원수련회 자상 중계

## “전도의 침병” 사명을 감당하며

13일 저녁 6시부터 9시 30분까지 남선교회-여전도회 임원 수련회가 열렸다. 이종운 목사의 특강에 이어 이규정 목사가 '2000년 하반기 전도회 운영', 고경선 목사가 '회의 진행법' 등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수련회에서 이규정 목사는 농어촌 100교회 지원, 잃은 양 찾기, 대신자를 위한 기도회, 전도 생활화, 70인 전도대의 주력 부대 동참 등 전도회의 중점 사업과 11월 사명자 대회에서의 전도 잔치 계획을 짰다. 한편 고경선 목사는 각 전도회가 수시로 열고 있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 방법론을 제시하여 전도회 회원들의 이해를 환기했다.

다음은 이종운 목사의 수련회 강의를 요약한 것이다.

한국 교회의 부흥은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있었던 회개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현재까지 보여진 한국 교회의 부흥

원인은 각 부문에서 다양하고 열정적으로 전개되었던 전도 활동이었다. 그러나 1990년 후반부터 나타난 한국 교회의 성장 정체 원인을 전도 열의 부족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21세기에 해야 할 한국 교회 재부흥을 위한 해법 역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교단은 1974년 5천교회 150만 성도 운동을 시작으로 1992년에는 2012년 창립 100주년까지 1만 교회 400만 성도(만사교회 운동)로 수정하여 전도 목표를 삼고 있다. 우리 교회는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전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방법은 한국교회 갱신 운동, 김치신학세미나 재개강, 세례교인 10% 선교사 파송, 그리고 국내 전도 활동으로 100교회 운동, 사회 선교로는 기독교교도소 설립 지원, 북한난민UN청원운동, 70인전도대, 영어·일어·중국어 동시통역예배, 영어성경공부교실 개설 등이 실시되고 있거나 계획

중이다. 특히 직능별(의료, 법률, 실업인 등) 선교회 조직도 곧 가시화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각 남녀전도회 회원 여러분은 서울교회 새 성전이 타 교회의 터 위에 세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 전도 사명을 이해해야 한다.

<김금준 순례자 편집위원>

### 사람을 찾습니다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일할 사람을 찾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은 서울교회 사무국(517-7651)으로 연락바랍니다.

1. 홍보실
  - ①. 컴퓨터 편집이 가능한 분
  - ②. 교회 주간 신문 <순례자>의 제작(취재, 편집 포함)이 가능한 분
  - ③. 홍보물 제작 능력이 있는 분
  - ④. 세례 교인으로 교회 봉사에 사명감이 있는 분
2. 동시통역요원
 

영어, 일어, 중국어로 예배 통시통역 가능한 분

## 15년이나 걸린 대답

이순임(새가족)

살아오는 동안 꼭 모셔야 할 것을 멀리한 채 난 15년 동안 쓸쓸함을 느끼며 살아왔었다. 학창 시절 주로 찾았던 책은 불교적 틀로 엮어진 소설이었고 결혼해서도 불심을 갖춘 시어머니와 함께 제등행렬에 끼어 걸으며 자연스런 가족 간의 대화를 하곤 했다.

그러던 중 내가 39세 되던 해 우리 집에 큰 변화가 왔다. 가까운 친척 때문에 가정 경제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었다. 당시 우리 부부는 7쌍의 부부로 구성된 어느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다. 모임이 있던 어느 날 저녁 우리는 교회 집사이신 한 부부와 함께 다방에서 차를 마시게 됐다. 나보다 나이가 많았던 그 형님은 갑자기 그 자리에서 손을 꼭 쥐고 어려워진 우리를 위로하고 돕고 싶다고 말하고 대신 청을 하나 들어달라고 했다. 이 자리에서 그분은 소유하고 계시던 집 한 채를 아주 싼 가격에 제시하셨다. 우리는 그 가격조차 맞출 수 없었는데 그분은 겨우 일부 금액을 넘겨 받고서도 문서를 그냥 넘겨 주었다. 그리고 나서 4개월이 흘렀다. 그 형님 부부는 “이제 청을 말할테니 놀라지 말라”고 말하곤 뜬금없이 “우리 교회 나오게”라는 것이

아닌가. 남편이 먼저 “좋지요”하고 대답했고 나도 “그렇게요”하고 두 번이나 말했다. 그러나 사실 마음에서 나온 대답은 아니었다.

하여간 은혜를 입은 그분에게 한 약속을 지키려고 준비를 하고 살던 집 옆 이층에 있던 작은 교회에 발을 딛게 됐다. 그런데 첫 주엔 머리가 형용할 수 없이 어지러워 설교 중 밖으로 나오게 됐다. 수요일, 다음 주일, 1개월이 지나도 “에”라는 대답은 쉽지 않았다. 이제 편안해야 할 내 집이 객사 같았고 모임날에는 그 형님 부부를 보는 일이 걱정스러워졌다. 가족들이 서로 교회 나가는 것을 미루면서 3개월을 흘려 보내던 중 그 형님이 찾아왔다. “내가 실수했나보네. 그냥 종전대로 아프지나 말고 밝게 살게나”. 그런데 그 뒤로 내 가슴에 뭔가 텅 빈 것을 느끼게 됐다.

그 다음 해 남편이 뇌졸중으로 몸을 거동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 “남편이 죽으면 나도 죽는다”는 생각에 아들들에게 유서 같은 글을 써서 남겨놓기도 했다. 그렇게 2년 여 세월이 흘렀고 생활이 쪼들려 집을 팔게 됐다. 그동안 집값이 오른 덕에 꽤 큰 돈을 남기게 됐다. 그 형님을 찾아가 내 돈 외에는 돌려드

리려 했으나 그 분은 무슨 소리냐고 하시면서 그 돈으로 잘 살기를 바란다고 하셨다. 그 집 문을 나서면서 그동안 교회 못나갔던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다시 교회 나가기로 마음을 다쳐 먹었지만 주일도 없이 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처지라는 핑계거리가 있었다. 지하실 방을 얻고 외국을 수없이 들락거리며 장사를 해서 자식을 키워 손자도 보았다. 남편도 산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많이 호전됐다.

작년엔 새 아파트로 이사도 할 수 있었다. 감격스러움에 여러 밤을 눈물로 지새기도 했다. 그리고 15년 만에 그 형님께 약속을 지켰노라고 말하고 싶어 외국 나들이를 청산하고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 갔다.

그러던 중 올해 2월 남편이 나와 영원한 안영을 고했다. 허전한 마음에 남편이 늘 거닐던 공원을 서성이고 있던 중 남편과 안면이 있다는 한 분이 다가와 “바깥 양반이 생전에 끝 교회 나갈 거라고 하셨는데...” 하면서 교회 다닐 것을 권유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분을 따랐고 도착한 곳이 서울교회였다.

그 이후 이제는 늘 말씀 가운데 살고 있다. 양털과 같이 부드럽게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던 이종운 목사님의 목소리를 기억하면서 이제야 그 형님께 “약속을 지켰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었다.

# 농촌전도대에 참여합시다

올 여름 농촌전도대는 경북 예천에 소재한 상리교회로 파송됩니다. 농촌전도대는 효과적인 전도와 원활한 봉사를 위해 성도님들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접 참여하실 청·장년 또는 물품·금전으로 지원하실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직:** 지도 이규정 / 대장 최중시 / 부대장 왕경래 / 총무 김성준 / 서기 김상욱

분과장=전도 이상호 / 교육 조정식 / 찬양 권윤경 / 홍보 이관규 / 의료 정동호 / 미용 곽숙 / 취사 김상욱 / 재정 왕경래 / 지역봉사 장양일

▶ **봉사대원 교육일정:** 1차(7월23일 오후 3시) 2차(7월30일 오후 3시30분) 3차(8월4일 오후 7시30분) 4차(8월6일 오후 3시30분)

▶ **봉사 분야:** 전도와 교육, 찬양, 의료(양한방), 이·미용, 기타 노력 봉사 등

▶ **필요 물품:** 화이트보드 칠판 1개, 기도 방석, 교회 바닥 우드룸 (25평), 강대상 마이크 (2개), 마이크 스탠드 (탁자용1개, 긴 것 1개), 식탁 (5개), 아동 간식 (40명 3회), 성경학교 교재, 선풍기 (3대), 주민초청간치 (50명 3회), 홍보용 현수막 (4점), 학용품,

전도용 부채 (300개), 돋보기 (100개), 의약품, 교회학교 시상품, 등

## 손영준 목사 협동목사 청빙

선교사훈련원(MTI) 원장으로 있는 손영준 목사가 우리 교회 협동목사로 청빙됐다.

손 목사는 9월부터 시작될 영어동시통역에 배의 통역자로 수고하게 된다.

## 새 예배당 주소 확정

교회는 새 예배당 주소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번지로 사용키로 했다.

현재 건축 중인 새 예배당은 3필지로 되어 있으나 이를 통일해 앞으로는 210번지로 사용키로 한 것이다.

## 상조위원회 조직

교회는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고 천국 환송 예배 준비의 일체를 맡아 주관할 상조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직을 발표했다.

위원장 민순구 장로, 위원 조정식 집사, 김정희 권사 등이다.

## ■ 동정 ■

\* 이종윤 목사는 18일(화) 서울여대 이사회에 참여하며 20일(목)엔 총회 선교부 실행위원회에 참여한다.

\* 우심화 목사(소망부 지도)는 18일(화)부터 8월 5일(토)까지 미국 산호세에 있는 신학교에 특강차 출국한다.

\* 이번 주 식사는 이영자 권사·유태서·김선미 성도가 가정에서 제공했다.

\* 인천희 권사는 무 5자루를 제공했다.

\* 시온찬양대는 17일(월) 새벽기도회 후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도회 및 현장방문을 한다.

\* 아브라함선교회·사라전도회는 22일(토) 오후 3시 70인전도대 주력부대로 활동한다.

## 주님, 이 생명을 구원해 주옵소서!

2000년 태산자 명단

전도자	태산자
한명순	허만희 백현주 김해숙 김명순
이은옥	전소연
강애자	김병기
한정아	정지현 여선일 박재인 최형석
이학주	김강준
이상호	엄운섭
이은호	전승균
최중시	이진영
왕경래	황중윤 김철호 고복희 장훈태 김병순
우상태	김우식 박옥진 허영미 김기주
주경자	김형우 배운덕

##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지난 주 ... 이번 주 ... "신나는 여름학교"

지난주간 대학부와 소망부의 수련회가 개최된데 이어 이번 주에는 사랑부가 16일(주일)과 17일(월)에, 새가정부가 17일(월)에, 유치·유년·초등부가 21일(금)부터 각

각 교회당에서 여름성경학교를 개최한다. 또한 중등부는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광림수도원에서 20일(목) - 22일(토)까지 수련회를 개최한다.

## ◆ 교회학교 여름행사 일정 ◆

부서	강사	실시일	장소	주제
유치부	이종윤 목사, 최지혜 전도사	7월 21일(금) - 23일(주일)	교회당(유치부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세요
유년부	이종윤 목사, 이영희 전도사	7월 21일(금) - 23일(주일)	교회당(유년부실)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초등부	이종윤 목사, 신미숙 전도사	7월 21일(금) - 22일(토)	교회당(초등부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
중등부	이종윤 목사, 용석범 목사	7월 20일(목) - 22일(토)	광림수도원(경기도 광주)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고등부	이종윤 목사, 이성득 목사	7월 24일(월) - 26일(수)	광림수도원(경기도 광주)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청년부	이종윤 목사, 고경선 목사	7월 31일(월) - 8월 3일(목)	산음휴양림(경기도 가평)	우리의 소망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부	이종윤 목사, 이상진 목사	7월 16일(주일) - 17일(월)	교회당(사랑부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세요
새가정부	이규정 목사	7월 17일(월)	교회당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

# 서울주간기도

##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교회학교의 여름 성경학교·수련회를 위해
2. 교회의 일꾼들을 위해
3. 농어촌전도대를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 예배 및 집의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5시30분

## † 교외약도

